

정치 참사에 외교 참사까지 부른 이재명



구월환의 시사저격

대한언론인회 주필
관훈클럽 39대 총무

대장동사건을 비롯한 희대의 부패 사건 주모자 의혹으로 2년간이나 국내 정치를 어지럽히고 사사건건 국가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최근 또 큰일을 저질렀다. 어처구니없는 나라 망신이요 정치 참사에 이은 외교 참사다.

그가 최근 명동의 중국대사관에 찾아가 중국대사로부터 당한 꼴은 청나라 시대의 굴욕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깔아뭉개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하이잉 중국 대사는 명색이 주재국의 제야당 영수인 사람을 앉혀 놓고 종횡무진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쏟아 냈다. 중국 대사가 무려 15분에 걸쳐 훈시나 다름없는 일방 연설을 늘어놓는 것을 목격한 우리 국민은 정상인이라면 배알이 뒤

틀리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마치 조선을 멋대로 주무르던 청나라 시절의 무례와 안하무인적 위압을 방불케 했기에 그의 장광설 일부를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 버전으로 각색해 본다.

“듣거라. 그대 조선의 국왕은 왜 그리도 우매한가. 어찌하여 우리 대국 황제의 거룩한 뜻을 모르고 미국을 따르는가. 우리 황제의 중국몽은 실로 위대한 것이거늘 봉황의 드높은 뜻을 모르고 배신하다니 한심하도다. 조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니 대오각성 할 지어다...” 이런 착각이 들게 할 정도의 불편한 장면에서 대한민국 야당의 영수가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멍청하게 앉아서 고개만 까딱거리고 있었으니 이 망신을 어찌할꼬! 그는 평소에는 잘도 대들더니 이날 중국 대사 앞에서만은 이상하게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문제로 중국대사관을 찾아가더니 이것 또한 경계망동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많은 오염수를 우리 코앞에 쏟아 내고 있다. 바로 우리의 서해 건너편에서 55개의 원전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료의원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박민수 선임기자

을 굴리고 있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원전의 6배, 한국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유사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일본이 밟다 해도 지금 중국과 손잡고 항일운동 할 때가 아니다. 이 대표

의 반일-친중 행태를 보면 역사의 시계가 1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가 과거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해질 지경이다. 그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서 일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미군을 서슴없이 점령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최근 대장동 의혹 등 수많은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그동안 굳게 믿었던 좌파 언론들까지 비판적으로 나오자 당황한 나머지 중국대사관을 찾아가는 외교 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그것은 완전 패착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그의 외교 감각은 물론이고 이념 지향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공산독재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고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그 이전에 무슨 곡절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시진핑도 아마 이번 해프닝을 잘 알 것이고 그 공로를 기특하게(?) 여겨 한국 야당의 당수에게 답례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에게 보복적으로 취했던 여행 제한을 비롯한 여러 조치의 일부라도 풀어 생색을 낼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이런 식의 생색, 즉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을 내년 4·10총선용으로 써먹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변덕을 부리며 이재

명과 민주당을 돕는다면 이는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런 교묘한 공작으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헛갈리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작이 성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21세기판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수천 년간 우리를 ‘동쪽 오랑캐’라고 비하하며 조공을 바치게 했고 625전쟁 때는 우리 국군의 북진으로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30만 대군을 급파하여 통일을 막은 나라다.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된 유엔 결의를 무시한 중국의 참전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도가 날아간 것은 우리 역사의 통탄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임하고 비핵화 요구에도 시늉만 내면서 우리의 안보를 이토록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한 이면에도 중국이 있다.

중국 대사와 이재명의 외교 해프닝으로 민심이 부글부글 하는데도 중국 정부는 또 북경 주재 우리 대사를 불러 반사(反思반성)의 뜻) 운운하며 훈계조로 나왔다. 그들의 대국우월주의와 소국멸시 체질은 언제나 변할 것인가!

불혹 넘긴 ‘돌부처’ 오승환, 가족의 힘으로 대기록 도전



스포츠 세상

박병현
국제문화체육부장·국장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는 속언이 있다.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팀 전력의 60~70%에 달한다. 타선이 좋으면 4강을 가고, 우승을 하려면 반드시 투수력이 좋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투수의 중요성이 크기에 ‘투수 놀음’이라는 말이 나왔다.

현대 야구에선 투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선발투수-중간 계투-완투-마무리투수 등 역할도 다양하다. 보통 팀 엔트리의 절반가량이 투수들이다.

야구에서 한 경기 기준으로 체력 소비가 가장 심한 포지션이 투수다. 야수들은 거의 매일 경기에 나서지만 선발투수는 일 주일에 기껏해야 2번 등판할 뿐이다. 보통 5명의 선발투수 가운데 제1선발은 ‘에이스’라고 부르는 이유다.

선발투수보다는 12점 차의 팀 승리를 지키기 위해 등판하는 마무리투수의 스트레스가 특히 이루 말할 수 없다. 마무리투수에게 요구되는 최고 요건 중 하나는 탈삼진율이 높고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보통 2사 만루와 같은 절체절명의

프로 데뷔 초기부터 마무리투수 전담 보직
열정·성실 돈보여... ‘끝판왕’ 등 다양한 별명

위기에서도 상대 타선을 막아 내야 하는 보직이므로 중압감 따위는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강심장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마무리투수가 ‘돌부처’라 불리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이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표정도 변하지 않는다 해서 ‘돌부처’라 불리는 그는 ‘끝판왕’ ‘돌직구’ ‘영리한 클로저’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다.

오승환은 얼마 전 한-미일 프로야구 통산 500세이브라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했다. 선발투수로 활약하다 구위가 약해지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마무리투수로 전환하는 게 보통이지만 오승환은 그렇지 않았다.

2005년 프로야구 데뷔 때부터 맡은 보직이 마무리투수였다. 키가 178cm인 신인 오승환이 기록한 첫 세이브는 2005년 4월 27일 대구 LG전에서였다. 3-1로 앞선 8회 무사 23루에 그가 나섰다. 안타 하나면 동점미 되는 위기였지만 무실점으로 막았고, 9회까지 무실점으로 처리해 ‘세이브 1’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그가 ‘살아있는 레전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오승환의 140km 후반대 패스트볼은 누

군가의 150km 후반대 패스트볼보다 강력했다. 야구공을 검지와 중지로 짚듯이 쥐고 돌덩이 같은 패스트볼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가 ‘역사에 남을 투수’로 서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년차인 2006시즌에 47세이브를 올린 데 이어 3년차이던 2007년에는 180경기 등판 만에 100세이브를 올리며 최소경기 100세이브 기록을 세웠다. 30세이브인 2012시즌 오승환은 369경기 만에 228세이브를 올리며 KBO 개인 통산 최다 세이브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LG 김용수가 보유한 227세이브였다.

해외 진출 선수들에게 으레 따라붙는 ‘통하겠느냐’는 의문이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한-미일 어느 곳에서도 오승환의 공은 ‘똑같이’ 통했다. 오승환은 2014년 일본 진출 첫해에 38세이브를, 2015년에는 41세이브로 2년 연속 센트럴리그 구원왕에 올랐다. 미국에서도 42세이브를 올렸다. KBO 복귀 첫해인 2020년 오승환은 한-미일 통산 400세이브를 기록했다.

492세이브의 기록으로 시작한 오승환의 올 시즌은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다. 전성기때 150km를 넘나들던 빠른 공은 평균



삼성 라이온즈 오승환이 6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종료 직후 팬들과 함께 한-미 통산 500세이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143km까지 내려갔고,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면서 실점하는 날이 잦아졌다. 마무리 투수의 보직을 반납하고 프로 커리어 처음으로 선발 등판도 했다. 2군으로 내려가는 등 부침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법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 내고 대기록을 달성했기에 대견스러울 뿐이다.

오승환이 보기도 못한 대졸 출신의 오승환이 한국 최고의 마무리투수로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재능 때문만이 아니었다. 훈련 시 러닝 훈련을 할 때도 감독이 지시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뛰었던 열정과 성실성 덕분에 훌륭한 선수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불혹을 넘기고도 마운드에 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오승환의 하루하루는 전쟁이다. 힘든 과정을 극복해 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장르의 드라마다. KBO리그에서 30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투수는 오승환이 유일하다. 이 기록조차 오랫동안 깨지기 어려워 보인다.

오승환은 이제 KBO리그 통산 400세이브에 도전 중이다. 개인 성적에 대해 할 말을 아끼는 그이지만 이 기록에 대해서는 간절함을 보인다. 세이브 22개만 더하면

달성할 400세이브는 역사가 오랜 메이저 리그와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기록이다. 400세이브를 기록한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는 8명, 일본에선 단 한 명에 불과하다.

1982년생인 오승환은 철저한 몸 관리로 여전히 왕성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에 든든한 힘은 바로 가족이다. 친가와 처가 식구들까지 아들-사위의 경기를 가슴 졸이며 응원한다. 4월에 아들이 태어났고, 지난해 결혼한 아내에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다고 했다. ‘돌부처’ 오승환의 용건을 기대하는 이유다.

다 쓴 글도 다시 보자

제1부 **살며 교열하며**
이성계 어른은 말이다... 교열이 뭐예요?
한 문장도 교열해 주시나요? 이런 문서도 교열하나요?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기법을 공유한다!

제3부 **세 얼굴**
따르다/이르다/거르다 처법/천엽/백엽

제2부 **두 얼굴**
여지없이/여지 없이 같이/같은
함께하다/함께하다 태울/거리/떨거리
읽어보다/읽어는/보다 못읽어 하다/읽어지다

제4부 **그리고...**
비표준어/방언/원말/전 용어/비속어 풍문으로 들었소!

저자 박재익 · 글로벌콘텐츠